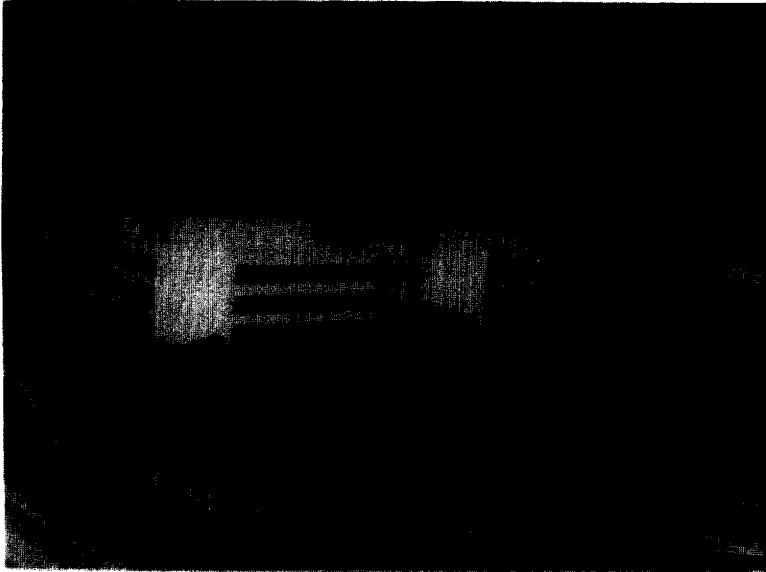


동아제약 (주) 중앙연구소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의 신촌 중앙연구소 투영본

동아제약 중앙연구소는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에 위치하고 있다. 본 연구소는 1968년에 처음으로 생산부 품질관리과내 연구파트로 탄생됐다. 4년후인 1971년 8월에 다시 생산부 연구과로 확대되었고 1974년 8월에는 개발부 연구과로 개편되었다. 그리고 7년뒤인 '77년 7월에 중앙연구소로 확대·개편되기에 이르렀다. 이 연구소가 기업부설연구소로 정식 인정된 것은 1981년 10월 24일, 이듬해인 '82년 1월 29일에는 기간산업체 선정위원회로부터 병역특례 연구기관으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1987년 1월 28일에는 방사성 동위원소 사용허가를 얻어 실질적 연구에 폭을 넓혔다.

본 중앙연구소의 연구인력으로는 민신흥 소장을 비롯한 59명의 연구원이 있다. 연구원 가운데는 박사가 5명, 석사 28명, 학사 11명 등, 고급인력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소는 지속적인 연구능력 배양과 연구원 자

질향상을 위해서 지난 '78년부터 2개월에서 1년 6개월까지의 해외연수를 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연수를 마치고 온 사람들 및 연수기관을 보면 김병철(Varian Co.), 신순천(Sloan-Kettering Inst.), 양중익(펜실바니아 주립대학), 안종철(Sloan-Kettering Inst.), 이신재(Sloan-Kettering Inst.) 등이 NMR 기기분석법연구를 비롯한 DNA 재조합, 유전자재조합 등의 연구를 미국에서 했다. 그밖에 일본, 이태리, 등의 각지 연구소와 제약회사에서 신약개발을 위한 여러가지 기술을 습득, 연구해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모두 14명 정도가 연수교육을 이수하였다.

연구소조직으로는 소장이하 부소장과 연구소 운영위원회, 연구기획평가위원회 등이 있고 그 산하 연구실로서 제품개발연구실, 생물약제연구실, 약리연구실, 유기합성연구실, 정밀기기분석실, 안전성연구실, 동물실 등이 있고 무엇보다 생물공학연

구실이 설치되었다. 지원부서로서 연구행정실과 기술정보실이 있다. 이와같은 다양한 조직과 우수한 인력을 통해서 본 연구소는 인류의 가장 고귀한 자산인 건강을 지키려는데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이다.

연구소의 재정을 뒷받침하는 본사의 자본금은 145억2천만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 1천5백80억원, 수출액 57억원 등이다. 또한 기술개발투자액으로는 30억5천2백만원으로서 매출액의 1.93%이다.

연구소는 건평 484평(1,600m²) 규모로 주요 연구기구는 미생물발효 일반시설로서 Fermentor(NBS-28: 생물공학연구용), Ultracentrifuge(Beckman, L8-80M: 유전공학연구용), Refrigerated Centrifuge(Beckman, J2-21M: 유전공학연구용) 등이 있고, 특수분석기기로서 HPLC(Perkinelmer, LC-657: 정밀분석연구용), NMR Spectrophotometer(Varian, EM 3640: 정밀분석연구용), Gamma Counter(Packard, 5650: 유전공학연구용, Liquid Scintillation Counter(Packard, 4430: 유전공학연구용, Gas Spectrophotometer(H/P, 5590: 정밀분석연구용) 등이 있다. 그밖에 Corning Pilot Plant(합성연구용), Narco Biograph System(약리, 안정성연구용), Thermal Analyzer(Dupont, M-99: 정밀분석연구용), Spray Dryer(Nioatomizer: 제제연구용), Flow Counter(Glatt, WSG-3VE: 제제연구용), Rheometer(Contraves, 115: 제제연구용), Dissolution Tester(Jas Co, DT-600: 제제연구용) 등 충분한 연구기기 및 시설을 갖추고 있다.

본 연구소의 주요연구업적으로는 1979년에 반합성페니실린계 항생물질 Talampicillin 합성에 성공하였으며 81년에는 비수성 조건하의 압출구형화-코팅 연속공정에 의한 서방성 제제의 개발 등 한국 제약계에 큰 공헌을 했음을 평가받았다. 뿐만 아니라 꾸준하고 효과적인 연구 노력결과 1985년

에는 효소면역측정법을 이용한 B형 간염항원, 항체진단시약의 개발 및 모노클로날 항체를 이용한 1-step ELISA를 개발하였고 뒤이어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항생물질 Amikacin 개발에 성공하였다.

이처럼 동아제약연구소는 인간의 생명을 구하고, 인간의 건강을 지키는 의약과 기술개발에 주력하여 왔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시설을 도입하고 있고 신개발품연구를 위해서 계속 새로운 프로그램개발에 나서고 있다. 이를위해서 올해에는 기술개발투자비를 68억9천4백만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매출액대비 3.98%이다. 또한 동아제약에서는 작년에 중앙연구소 신축을 시작했다. 그 총 투자비는 5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축기간은 1986년 9월 착공, 금년 11월 완공예정이다. 신축위치는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상갈리이며 연건평 2천평, 대지 9천평 규모이다. 이 연구소가 완공되면 그 수용인원은 약 100명으로 보다 풍부한 인력과 연구시설을 갖추게 된다.

1987년이후의 주요 연구과제로는 유전공학기술을 이용한 의약품 Peptide 개발과 모노클로날항체를 이용한 진단법 및 치료제의 개발 등이 있고, 장기전략 연구과제로는 항암성 Peptide 개발과 심장혈관계 작용 신약의 개발 등 의약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그밖에 '산·학·연' 공동연구현황면에서는 1976년으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KAIST를 비롯한 화학연구소, 서울대, 연세대내의 연구소 등과 17건의 산·학·연 협동연구를 펼치고 있으며 앞으로 연구소 자체내에서는 물론 다른 연구소와의 공동연구를 통해서 보다 많은 연구과제를 다룰계획으로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비례해가는 질병들의 발생상태에 대응해서 동아제약 중앙연구소는 어느곳에서보다 효율적인 연구체제관리,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태도로 인간생명을 보호하는 연구소가 되려는 한 가지 소망으로 나아가고 있다.